

2026년 5월 3일 주일

부활 제5주일(생명 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제5주일이며 생명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 주시고 무엇이 참된 삶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 가르쳐 주신 길을 성실히 걸어갈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입당성가 : 139번 '알렐루야'

본기도

+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제 1 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6장 1절-7절

화답송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제 2 독서 :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2장 4절-9절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장 1절-12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39번 ‘거룩한 어머니’

영성체 성가 : 498번 ‘예수여 기리리다’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와 당신께서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느님은 늘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보다 심판과 벌을 먼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두렵고 힘들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믿음의 깨달음을 달라고 청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룰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44번 ‘성모의 성월’

2026년 5월 10일 / 부활 제6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제자들의 부활 체험은 말씀의 선포로 이어졌습니다. 선포되고 전해진 말씀은 모든 이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도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슬픔에 잠긴 이들, 실의에 빠진 이들에게 먼저 전할 것을 다짐합니다.

입당성가 : 132번 '감사의 송가를'

본기도

+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8장 5절-8절. 14절-17절

화답송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 2 독서 :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3장 15절-18절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장 1절-12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38번 ‘자모신 마리아’

영성체 성가 : 170번 ‘자애로운 예수’

영성체 후 묵상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 하십니다. 또한 당신 사랑의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 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이 세상은 영적 기쁨의 자리로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40번 ‘복되신 마리아’

2026년 5월 17일 주일

주님 승천 대축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홍보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을 기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 인간의 품위를 들어 높이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온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로 다짐합니다.

입당성가 : 137번 '부활하신 주 예수'

본기도

+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저희를 들어 높이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감사의 제사를 바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늘 나라에

그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1장 1절-11절

화답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1장 17절-23절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 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28장 16절-20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 성가 : 152번 ‘오 지극한 신비여’

영성체 후 묵상

천사는 말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지니게 된 희망과 받게 될 상속의 영광을 알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기쁘게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41번 ‘죽음을 이긴’

2026년 5월 24일 주일

성령 강림 대축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저마다 받은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합니다.

입당성가 : 142번 '오소서 성령이여'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이 축제의 신비로

모든 민족들과 나라에 세우신 하느님의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니

성령의 선물을 온 세상에 내려 주시고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장 1절-11절

화답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2장 3절-7절. 12절-13절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장 19절-23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342번 ‘제물 드리니’

영성체 성가 : 158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영성체 후 묵상

한자리에 모인 사도들 위로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온 집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앉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전하는 사도들,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47번 ‘임하소서 성령이여’

2026년 5월 31일 주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청소년 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이며 청소년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와 사랑을 뜻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온 사랑에서 교회는 탄생하였고,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에 따라 일치와 헌신의 삶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81번 '영광의 주 성삼위'

본기도

+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신 성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어

하느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인간에게 밝혀 주셨으니

저희가 참신앙으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을 알고

오직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을 흠송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제 1 독서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34장 4절-6절.8절-9절

화답송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13장 11절-13절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장 16절-18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 : 145번 ‘맑은 하늘 오월은’

영 성 체 : 501번 ‘받으소서 우리 마음’

영성체 후 묵상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사랑 자체이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삶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켜 가는 여정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향

파견성가 : 80번 ‘거룩하신 성삼이여’